

##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의 당면과제 (저변확대를 중심으로)

崔 東 輝

韓國電氣通信公社 情報通信事業局長

### I. 서 론

정보란 말은 “나 혼자만 안다”는 배타적 성격의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 이 정보가 남이 아닌 자기를 충실하게 가꾸어 주는 생활의 길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속성 그대로 언제부터인가 이 정보가 사회의 공기라는 사실도 자각하고 이를 공유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는 최근의 생활은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생활에 접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숙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처에서 정보, 컴퓨터, 데이터, VAN, LAN/WAN 등 정보를 중심으로한 말의 성찬을 들을 수 있고, 도래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도 없게 되었다.

봄이 오기전에 화신이 피부에 느껴지듯 우리도 모르게 다가와 있는 정보화 시대가 여기저기서 산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낯선듯한 정보화시대를 멋지게 맞아들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깊은 연구와 주의깊은 판단력, 투철한 사명감과 과감한 leadership이 있어야겠고 또 각계각층이 공감대를 이루어 동참하면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resources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풍부한 인력, 두메 산골에서 외딴섬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이용을 기다리는 통신망등 기본요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제도, 컴퓨터 중심의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창조적인 전략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면 정보화 사회는 나도 모르게 내집 뜰안에 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밖으로부터 개방을 요구하는 세찬 외침을 듣고 안으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KTA라함)의 민영화라는 큰 변화를 눈앞에 보면서 우선 시급한 정보통신 사업의 저변확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고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간단히 제시코저 한다.

### II. 정보기술/정보통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정보기술/정보통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겠다.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수집, 처리, 가공 전달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말한다. 정보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기술, 정보의 가공,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처리기술 및 집적된 소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기술등이 정보기술을 구성하게 된다. (표1)

본래 통신과 컴퓨터는 서로다른 시점에서 서로다른 목적을 갖고 발전하여 왔다. 통신은 전신·전화를 중심으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고, 컴퓨터는 계산기능을 중심으로 1946년에 개발되어 점차 data process 분야로 그 운용을 확장하여, 이들은 AT & T와 IBM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주축기술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통신과 컴퓨터가 공유한 반도체라는 집적소자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드디어 통신은 컴퓨터 컨트롤을, 컴퓨터는 원거리 데이터 전송을 서로 맞 물리게 함으로써 이 두 분야가 더이상 독립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렸다. 따라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는 통신과 컴퓨터의

표 1. 정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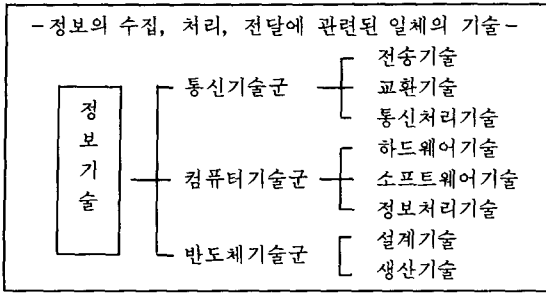


표 2. 정보통신

광 의	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정보처리 및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
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컴퓨터등에 의한 정보 처리 기반구조</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전신, 전화등에 의한 전기통신 기반구조</div> </div>
협 의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을 활용하는 것

기술을 총칭하여 정보기술이라 하고 이를 서비스 측면에서 보통 정보통신이라고 부르고 있다.(표2)

여기서 정보통신의 대상은 단순한 음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귀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즉 문자 도형, 영상등 비음성쪽에 광대한 영역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기술적으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즉, 통신처리 분야에서는 종래의 단순 전송에서 정보의 변환, 정보의 축적, 프로토콜의 표준화, 이중 망간접속등이, 정보의 처리 분야에서는 문자정보의 처리, 도형정보의 처리, 영상 정보처리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표3)

표 3. 통신처리 및 정보처리 기술개요

통신 처리 기술	정보 처리 기술
정보의 변환	음성정보의 인식, 합성처리
정보의 축적	한글정보의 처리기술
프로토콜의 표준화	문자 및 화상정보의 인식, 합성처리
이중망간의 접속	영상정보의 인식, 합성처리

이들 핵심과제들이 전자공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과 함께 소위 첨단기술로 분류되어 지식산업, 신인류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정보통신을 꽃피우면서 다가오는 사회에서 사회기반의 구조를 이루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를 주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III. 우리의 환경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사업은 양적인 면에서 급격히 팽창하였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지난해에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성공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통신분야에서는 수출의 다변화를 이룩하기도 전에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개방을 요구하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여기에 노출된 우리의 사정은 전신, 전화를 제외한 VAN 서비스 분야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충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수출 흑자국의 대열에 들어선 국민경제의 성장은 전기통신 사업의 정부독점이 다양하고 개방된 사회질서를 수용하는데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내 최대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KTA를 '89년중 민영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내실이 있고, 통신사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 있고, 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의 강한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가 왜 VAN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인 방과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 1. 전기통신 운용부문

그동안 국민경제의 부침을 따라 타 경제부문을 뒤따르고 있던 전기통신이 타 경제 부문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는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부터다.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전기통신은 강력한 절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의 발전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고 계속된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은 80년대에 들어 착실한 열매를 맺어

- '82년부터 매년 100만 회선 이상을 공급
- '86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설계한 전전자교환기 공급
- '87년 7월에는 전국의 통화권을 읍, 면 단위에서 146개 시, 군 단위로 광역화

- '87년 9월에는 전화시설 1,000만 회선 돌파 등의 위업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88년 9월 전기통신 문화의 완전 개화를 상징이라도 하듯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세계만방에 우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 달성한 이 괄목할 결실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사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일구어 놓았다.

-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국민경제의 성장과 이용자의 의식수준 고도화는 시장성립의 기본요건인 수요창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 농어촌 벽지로부터 세계의 어느곳이든지 즉시 연결할 수 있는 통신의 highway는 부가통신이 꽃필 수 있는 기간망 준비를 완료하였다.
- 자체 능력으로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고 16M DRAM을 설계하는 등 축적되어 있는 기술능력이 대내외적으로 상당수준을 인정받았다.
- 1,000만 회선을 유지하면서 연간 100만회선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훈련되고 개발 가능한 풍부한 인력이 있다.
- 구미선진 제국이 경쟁의 대상으로 느낄만큼 우리 산업체의 외형이 성장하고 내실화 되어 있다 등. 물론 모든 발전이 그렇듯이 그늘지고 위축된 분야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분야는 충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정보통신 운용부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은 1972년 11월 전용회선을 이용한 외환은행의 본 지점간에 개설된 온.라인 시스템을 효시로 KAIST, 금융기관, 내무부, 대한항공 등이 전용회선을 구성하여 자사내의 통신수단으로 host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특정업무,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일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된 것은 '82년 3월 29일 발족한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가(이하 DACOM 이라함) '84년 7월에 개통을 본 공중정보통신망(DNS)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부터다. 이 DACOM의 창립과 DNS의 개통은 통신발달사에서 몇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을 강력한 정부주도형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정부 각 부처에서 산만하게 논의되던 정보통신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resources를 체계있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셋째 정보통신 시대의 도래를 실증적으로 예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활발한 대회를 일으켰다.

넷째 공중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과 정보통신사업으로 2원화하고 정보통신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착을 꾀하였다.

이렇게 통신발달 측면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었던 DACOM의 창립은

- 정보통신 사업이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모든 resources를 새로이 확보해야 하는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고
- 더우기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고 DNS라는 새로운 투자로 낯선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됨에 따라 이용료의 고가화, 이용자군의 형성등에 어려움을 주었다.

따라서 DNS를 개통한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5대 node만을 확보하였고, 비교적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중심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위한 data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성을 노출하였다. 그나마도 이러한 사정을 더 악화시킨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 증권, 재벌그룹의 정보통신이 DNS를 외면하고 자가망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사업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립 7주년을 맞는 오늘의 DACOM이다. 데이터통신 핵심 서비스인 DNS 가입자가 아직도 4,000여명을 헤아린다는지 통신공사로 부터 이관받은 특정 통신회선의 재판매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절반이 넘는다는지 정부의 지원하에 공중정보통신 서비스를 독점하여온 DACOM이 정작 VAN서비스 분야에서 이룩한 것이 미미하다든지 하는 사실들은 이나라 정보통신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창립당시의 강한 의지도 실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모습이 개방이나 민간참여폭의 확대라는 외풍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3. 통신 및 정보기기 산업분야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공중용 전전자 교환기를 자체 설계하여 공급하는 수준이며 반도체 산업도 이미 16M DRAM의 자체 설계를 완료하여 시작품을 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한편 정보산업 분야는 단순기능의 주변기기나 퍼스널 컴퓨터가 이미 주력수출 상품화 하였고 8/16/32bit 마이크로 컴퓨터의 수입대체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32bit 미니 컴퓨터를 자체 설계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아직도 전략적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초기 진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품에 의한 양적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고

-소품종 다량 수요라는 소비패턴이 다품종 소량 수요라는 패턴으로 변화하는 시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며

-내수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시장 구조를 위협하는 개방압력을 극복하는 등

제2의 도약을 통하여 내외의 도전을 이겨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처리 사업의 경우는 위 두 분야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다. 표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 개발업체는 '87년 8월말 392개사에서 같은 기간 71사가 증가하여 463개사로 되었으나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업체가 253개사로 54.6%에 이르고, 종업원 15명 미만의 업체가 206개사로 44.5%나 되어 시장구조가 거

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venture성 business만 있을뿐이라는 이야기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처리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에너지는 비교적 갖추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조직화 하고 수요를 창출하며 시장을 형성하는 등 주도하는 실질적인 group이 없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 4. 정보통신 역무제공사업 분야

지난해 말까지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있는 업체는 113개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전용망을 통하여 자체업무를 전산 처리 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대중성이 있는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DACOM의 천리안 서비스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며 또 전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사업은 지정된 공중통신사업자만 가능토록 하였고, 또 전용 회선을 임차한 경우에도 목적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전통적인 통신사업의 독점권 보호라는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승인된 역무제공 업체는 순수한 자가망의 DB를 갖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표 4. S/W 개발업체(자본금 별)

단위: 사( )는 구성비%

시점 \ 자본금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1 억원미만	1 억원~ 5 억원미만	5 억원~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합 계
1984년 8 월말	65(30.4)	65(30.4)	48(22.4)	7(3.3)	29(13.5)	214(100.0)
1985년 8 월말	79(25.9)	97(31.8)	81(26.6)	10(3.3)	38(13.5)	305(100.0)
1986년 8 월말	82(23.3)	118(33.5)	96(27.3)	13(3.7)	43(12.2)	352(100.0)
1987년 8 월말	98(25.0)	130(33.2)	106(27.0)	10(2.6)	48(12.2)	392(100.0)
1988년 8 월말	70(15.1)	183(39.5)	151(32.6)	15(3.3)	44(9.5)	463(100.0)

자료: 한국정보처리기업체편람

표 5. S/W 개발업체(종업원수 별)

단위: 사( )는 구성비%

시점 \ 종업원	15명미만	15명~ 30명미만	30명~ 50명미만	50명~ 100명미만	100명이상	합 계
1984년 8 월말	78(36.4)	41(19.2)	29(13.6)	21(9.8)	45(21.0)	214(100.0)
1985년 8 월말	145(47.5)	51(16.7)	33(10.8)	19(6.3)	57(18.7)	305(100.0)
1986년 8 월말	164(46.6)	68(19.3)	33(9.4)	23(6.5)	64(18.2)	352(100.0)
1987년 8 월말	190(48.5)	74(18.9)	36(9.2)	29(7.4)	63(16.1)	392(100.0)
1988년 8 월말	206(44.5)	101(21.8)	51(11.0)	38(8.2)	67(8.2)	463(100.0)

자료: 한국정보처리기업체편람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도래,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지상명제를 앞에 두고 단계적으로 이 독점권 보호를 완화해 왔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5년 1월 :

- 대리점 등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에 정보통신회선의 공동사용이 허용됨
- 국내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을 위한 정보통신 회선사용 허용. 이때에도 컴퓨터를 교환기처럼 사용하는 정보교환행위 및 컴퓨터를 사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금함

'87년 6월 :

-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의 공동전산망 구성시에는 정보교환행위 및 타인통신 매개행위 허용
- 외국 합작법인 (50%까지)에게도 정보통신 역무제공업 허용

'88년 12월 :

- 타인사용의 특례를 정하여 거래고객 1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처와 연결을 허용하여 자재공급업체, 판매업체 등의 공동전산망 접속이 허용됨
- 민간기업자에게도 9,600bps급 이하의 mux 장치 사용 허용

#### IV. 문제의 제기

이상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환경을 검토하여 왔거니와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산업이란 정보의 처리, 검색, 정보통신, 컴퓨터 파워제공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고 정보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일차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사업은 첫째 정보의 처리 및 검색서비스. 둘째 전자우편, 전자계시판, 온·라인쇼핑, बैं킹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컴퓨터 파워제공은 주로 제한된 이용자군을 형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나라의 환경과 연관시켜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몇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1. 수요관리

초기 정보통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본다. GNP의 성장, 산업여건의

성숙, 정보통신 전담회사의 창립,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방대한 PSTN망과 전화가입자 등은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수요계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수요관리의 부재로 구매력이 전혀 없어 시장 형성이 불가능했다.

##### 2. 기술축적

우리 산업체의 능력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력, 자금, 기술 등도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어 수요층의 자극만 확실하다면 항상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빈곤은 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고 내수기반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 3. 규제와 참여

공중정보 통신사업은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접화되었으나 발전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주는 전통적 시각에 집착한 나머지 타이밍을 잃고, 정보의 교환이나 타인 통신의 매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88년 12월 정부의제3차 완화조치가 있기까지 대중성이 가장 강하다는 정보의 처리 및 검색, 정보통신 서비스를 자가서비스로 묶어놓는 결과를 빚어 시장형성을 불가능하게 했다.

##### 4. 사업활성화와 수익기반

한편 이 전통적인 시각은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익기반이 취약한 DACOM으로 일원화하였고, 이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DACOM은 KTA로 부터 특정 통신회선의 판매를 이관받아 재판 매하게 되었다.

본래 기업의 활성화는 수익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기업의 속성상 창립 7주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이 수익이 그 많은 정보통신 사업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DACOM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현상을 빚고 있어 결과적으로 DACOM이 소액투자자로 비교적 사업추진이 용이한 부문에서 business를 찾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재원을 찾는 사업의 본격적인 제도수정이 필요한 어려운 입장까지 오게 되었다.

##### 5. DB 사업의 소외

현재의 여건으로 부터 시장개방을 단행하는 시기에 이르는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는 집중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DB를 스스로 구축하겠다는 정보통신 사업자의 의지가 없다. 그들은 항상 유용한 DB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표준화를 추진하고 DB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DB 구축보다는 그 주변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시장제도도 미비한 채 방대한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DB의 구축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이러한 상태로 시장개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상이다.

## V. 대 책

정보통신 사업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화의 주기가 빠르고 질서가 다양화했다는 점과 타이밍(시기)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데 있다. 다양한 질서는 획일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이 빠른 변화의 주기속에 타이밍을 잃는다는 것은 정보이전에 원천적인 기회를 봉쇄당하는 때문이다.

KTA를 민영화하는 움직임은 전자의 예이고 오일값이 폭락하리라는 예측을 못하고 현재가를 기준으로 경제개발을 꾀하다 나라가 온통 파산지경으로 들어간 중남미 어느 국가의 예는 후자의 예이다. 따라서 다양한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리버럴한 조직과 제도를 개발하여 타이밍을 얻은 후에야 인력, 자금, 기술을 효과적으로 묶는 조직적인 노력이 성공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다양한 질서의 수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전기 통신사업은 그 성격상 정부독점 형태를 띄웠고 기본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속에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수요의 성격이 강한 전화사업의 경우는 비교적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부가가치의 성격이 강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화사업의 경우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데 100년씩이나 걸렸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고객들은 전화를 사용하면서 이미 개념을 얻었고, 또 닥쳐오는 변화의 파고와 개성화시대의 길잡이를 자부하는 정보통신의 속성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과감하게 정부독점이니 획일적인 규제완화니 하는 기본입장을 리버럴한 방향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민 모두가 중의를 모아 시장에 참여하고 수요가 수요를 부르며, 탄력있는 구매력의 대응이 생기면서 잠재수요가 현재화 한다. 먼저 잠자는 공중을 깨우면 "사랑방"류의

개성화된 서비스가 꽃피게 되면서 정보통신 시대라는 말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기존 통신망 활용의 극대화

우리는 내·외로 부터 통신사업의 성공을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이제 저가품을 고가화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제2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개방이라는 세찬 파도마저 눈앞에 밀려와 있어 자칫하면 기다려서 붙잡은 타이밍이나 여건의 덕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에 와 있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전화망, 테렉스망, 팩킷망 등 몇개의 전국적인 통신망이 있다. 이들 모두가 훌륭한 정보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그 특성에 맞추어 사업을 개발하면 우리는 비교적 값싸게 정보통신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공중정보통신의 기층을 이루는 저속, 대량정보가 전화망이나 CSDN망에 알맞다고 하면 테렉스망은 메세지류의 정보를 전달하기에 좋고 팩킷망은 팩킷형 즉, 다품종 소량 정보의 처리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전화망은 정보통신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1,000만의 방대한 이용자를 갖고 있어 정보통신 대중화에 가장 적합한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TA는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어 스스로의 체질에 알맞는 videotex, 학습보조용 데이터 베이스, message 서비스 등 전화망이나 테렉스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DACOM은 아직은 수익기반이 취약하다 하지만 packet 망의 특성을 활용하는 기업정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컴퓨터 파워 제공, closed user group의 개발 및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 3.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1) 금융지원

정보통신을 사업화 하는데 표준화나 수익성을 이야기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보다 먼저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는 상품의 개발, 구매력 있는 시장조성, 능력있는 인력의 개발 등으로 사업화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친화력 있는 상품이 개발되면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을 국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함께 마련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세계의 도입, 기술지원, 사후관리 체제형성 등에 산, 학 모두가 동참해 주어야 할 것이다.

#### 2) 수요진작

수요 특히, 대량수요없이 시장기반이 단기간에 정

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량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PC 1,000 만대 보급, 행정전산망 구축,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PC 공급 등 일련의 정책은 수요를 자극하고 산업 및 R/D 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대량수요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집중지원이 초기의 정보사회 기반정착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시장조성

재래시장의 구조가 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에 알맞을까? 종래의 유통구조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가 한정되어 있고 시장형성 단위가 좁으며 처리속도가 너무나 완만하다. 따라서 수평적으로는 많은 점포가 일정지역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수직적으로는 다단계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개업소가 오늘처럼 산재하고 있으면 부동산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용이할 것인가? 이 시장구조의 재편성에 정부나 통신사업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제도의 개발 등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목적이 결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필요한 사업분야 발굴

정보통신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도 없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발굴된 사업의 가치를 판단토록 하여 이를 공시 또는 사업에 시하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적정기간중 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공공성이 강한 데이터의 일반공개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처리는 일찍부터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도 상당량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의 공중전화와 같은 값싼 정보통신망을 개발하고, 공공성이 강한 DB를 적극 개발토록 유도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개발되어 있는 DB의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건설한 정보제공자(IP)를 체계있게 확보하고,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내, 외의 도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resources 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구각을 탈피해야 한다. 독점의 그늘에서 안주하려는 자세나 보호라는 획일적 의지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일들은 이 변화의 속도나 다양한 사회질서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물건은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시각에서 정책 입안자는 사업자들을 독려해야 하고, 사업자들은 상호 생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 험한길을 헤쳐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아직 자가망속에 안주하고 있는 113개 역무제공업체에게 자유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주역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대기업이 망라되어 있고, 이곳은 그들의 시장이며, 그들은 이 시대를 주도하여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는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시대는 정부나 통신사업자 또는 몇몇 지식인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업인이나 이용자들 처럼 그들도 그들의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동참하여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일을 여는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 參 考 文 獻

- [1] 정보통신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 6. 17일
- [2] 정보기술 방향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6.
- [3] 행정과전산, 총무처, 전자계산소, 1988. 12. 3
- [4] 경영과 기술, 창간호, 한국전기통신공사.
- [5] '89년도 주요업무계획, 한국전기통신공사.
- [6] 정보통신사업의 발전과 국가정책과제, 국제경제학회 김영봉. 1987. 12.
- [7] 정보통신의 오늘과 내일, DACOM, 1987. 4.
- [8] 컴퓨터 비전, 1988. 9월호, 11월호
- [9] PC저널, 1988. 10월호
- [10] 사무와 경영, 1988. 10월호

## 筆者紹介



崔 東 輝

1941年 4月 8日生

1974年 2月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사)

1982年 8月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공학석사)

1963年~1981年 4月 체신부 근무

1981年 4月~1984年 7月 ITT Asia Pacific Inc

1984年 7月~1987年 7月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본부

1987年 7月~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개발단 정보통신사업국장

發  展

三星電子株式會社

代表理事 副會長 姜 晋 求

情報通信分門 代表 鄭 溶 文 副社長

半 導 體分門 代表 金 光 浩 副社長

家 電分門 代表 尹 鍾 龍 副社長